

명저산책

Review



아구스틴 쿠에바의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

김기현

1.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이해를 위한 필독서



필자는 1986년 멕시코국립대학교(UNAM) 라틴아메리카 지역학과로 유학을 갔다. 학기가 시작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학과 교수를 찾아뵙고 미리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이것만은 꼭 읽고 오라고 추천해준 책이 바로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수탈된 대지』, 스탠리 스테인과 바바라 스테인의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유산』, 아구스틴 쿠에바(Agustín Cueva, 1937~1992)의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El desarrollo del capitalismo en América Latina) 이렇게 세 권이었다. 나는 이 책들을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정말 꼼꼼히 읽었다.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시각, 그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참신함이 돋보이는 책들이었다. 나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때



아구스틴 쿠에바

습득한 시각이 나의 라틴아메리카 인식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라틴아메리카 저개발의 문제를 다룬다. 즉 라틴아메리카는 왜 서구 선진국처럼 발전하지 못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아구스틴 쿠에바의 책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유행했던 종속이론과 달리 저개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고자 한 점이다. 이것이 바로 아구스틴 쿠에바를 라틴아메리카 종속이론의 대표적 비판가로 만든 이유이다.

그는 자신의 시각을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 제1장 첫머리에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가인¹⁾ 후이 마우루 마리니(Ruy Mauro Marini)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산업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약한 것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수탈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부세력에 의해 수탈당한 것은 내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즉

1)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이란 외부적 모순을 강조하는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분석을 결합한 이론을 말한다.

모두가 라틴아메리카 저개발의 문제를 서구에 의한 외부적 수탈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을 때, 쿠에바는 그러한 수탈이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외부적 모순보다 내부적 모순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것이 1977년으로 그때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종속이론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틴 쿠에바의 주장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이론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외부적 모순에서 다시 내부적 모순으로, 즉 종속이론에서 계급분석으로 새로운 전환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검증한 책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였다. 따라서 이 책은 그 후 줄곧 좌파에 의한 종속이론 비판의 대표적 저술로 꼽혔다.

이 책은 출판 당시부터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출판사 중 하나인 'Siglo XXI'의 최우수 저술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이라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 외부적 수탈을 가능케 한 내부적 취약성

그러면 아구스틴 쿠에바가 말하는 외부적 수탈을 가능케 한 내부적 취약성이란 무엇인가? 즉 라틴아메리카가 서구 선진국과 같은 산업화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저개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 조건이란 무엇인가? 독립 직후 상황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독립 직후: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 강화

쿠에바는 독립 직후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취약성은 식민지로부터 물

려받은 경제사회적 구조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독립 직후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식민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노예제와 봉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구조는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가 자본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독립 직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이러한 전자본주의적 구조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했다.

쿠에바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은 독립 이후 약 50년 동안, 식민시대 전 시기에 걸쳐 수입했던 노예의 약 38%에 해당하는 135만 명의 노예를 더 수입함으로써 노예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페루의 봉건지주 계급도 독립 직후 자신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했다. 독립 이후 공화국 시대는 자유주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또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대토지소유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추방된 스페인 사람들 소유의 아시엔다(hacienda)를 구매하거나, 붕괴된 원주민 공동체 소유의 땅을 강탈하거나, 미개간 국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지주계급은 봉건적 아시엔다를 이전보다 확장했다.

결과적으로 독립 직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배계급이 봉건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한 초기 산업화의 실패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말 자본주의 세계화 시기에 단순한 1차 상품 수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쿠에바의 주장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본원적 축적 과정

쿠에바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 과정도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럽의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과정이 식민지로부터 가져온 경제적 잉여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봉건 세력이 지배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과정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수탈과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주의 같은 것도 실현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초기 자본주의 발전은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국내자본가 계급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초기 자본주의 발전은 외부 동력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자본주의적 사회구조 위에서 형성된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자본주의는 고립된 ‘작은 섬’의 형태로 나타났다. 소위 ‘엔클라베’(enclave: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에 있는 외국인 영토) 경제도 전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으로 인해 탄생했다.

과두제 시기의 초기 자본주의: 협소한 국내시장과 봉건적 자본가 계급

쿠에바는 또한 과두제(oligarquía: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배적이었던 정치체제) 시기의 자본주의 발전은 정체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반노예적, 반봉건적 요소들이 강한 나라일수록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반면 유럽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자유노동이 규범이 된 나라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분석한다.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시기의 멕시코는 전자에 속하고, 목축업의 발달로 유럽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아르헨티나는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봉건적 대토지 소유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고 한다. 거의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던 멕시코보다 이민자 자유 노동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르헨티나의 초기 자본주의 발전이 유럽처럼 자영농민의 확대라는 기반 위에서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

이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자영농민이 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아시엔다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 나라의 초기 자본주의 발전도 대중의 빈곤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것은 국내시장의 협소화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또 다른 내부적 취약성이 되었다.

한편, 반봉건적 사회구조에서는 진정으로 근대적인 자본가 계급의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자본가 계급은 토지귀족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탄생했다. 이런 자본가 계급은 생산력의 발전보다는 지대 추구 성향이 더 강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자본가 계급은 산업자본가이자 동시에 봉건적 지주였다.

내부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수입대체산업화

아구스틴 쿠에바는 1차 세계대전과 1929년 세계대공황도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속이론가들은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서구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절시킴으로써, 즉 일시적으로 종속의 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세계대공황이 라틴아메리카 수입대체산업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쿠에바는 그러한 과정이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계급관계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그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몇몇 경우에는 반드시 대토지소유자보다 민족자본가 계급의 우세라는 내부적 계급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대토지소유자들의 권력이 강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서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수입대체산업화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로 인해 소득 분배가 후퇴되

고, 대토지소유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세계대공황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민자 출신의 대통령 이리고엔이 물러나고 보수적 군부가 재집권했으며, 우루과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 바트예 사후 테라(Gabriel Terra)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 이들은 대공황에 맞서 산업화를 추진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 처방을 강화했다. 반면 세계대공황 이전부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브라질의 경우 국내자본가 계급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수입대체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쿠에바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계급투쟁이 진보를 이끌어갈 세력들에 우호적 결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라틴아메리카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시에 계급투쟁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종속적 과두제는 오히려 강화되며, 저개발 경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조정 필요성에 따라 종속된 채 제국주의 경제가 재할성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나간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실제 세계대공황 이후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와 대중의 빈곤화

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입대체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붐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세계경제의 붐은 라틴아메리카 1차 상품 수출 붐을 가져왔고, 수입대체산업화도 그러한 붐을 통해서 가능했다. 1차 상품 수출로 인한 재원이 수입대체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자본재 생산 부문의 미발달로 인해 산업화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 축적은 불가능했다. 농업에서도 대규모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된 대규모 토지소유제가 그것을 막았다. 결국 수입대체산업화는 원래 추구했던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의 꿈을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쿠에바는 이러한 현상이 대토지소유제의 지속, 민족자본가 계급의 미약함이라는 조건에서 전개된 산업화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물론 산업화로 인해 지주 계급의 권력은 다소 약화되었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내부적으로 기술 관료와 거대 산업 혹은 금융 자본의 힘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독점적 권력 블록이 형성되었다. 이런 구도 아래에서 소득과 권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에는 포퓰리즘의 ‘복지’ 구도가 고갈되면서 사회적 지출이 감소했다. 쿠에바에 따르면 포퓰리즘도 계급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제대로 실현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오히려 민중 계급의 억압과 그에 따른 계급투쟁의 격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과 쿠바혁명이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쿠에바는 토지개혁을 동반한 사회개혁은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러한 사회개혁은 보다 급진적 사회변혁운동으로 진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는 또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이 고갈되고, 노동의 국제적 분할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칠레 피노체트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국가부문의 해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최후 거점을 붕괴시켰다. 수입대체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자본가 계급은 비록 소심하게 우왕좌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외부세력을 통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군부정권의 도래와 새로운 노동의 국제적 분할로 인해 민족자본주의 발전의 열망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과 거대 자본 세력은 다국적기업 연합의 후원 아래 새로운 틀을 짜기 시작했다. 그런 틀 아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절대적 빈곤화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빈곤화는 노동자와 농민 계급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쿠에바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던 민중투쟁이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의 그러한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이러한 희망은 1980년대 초 외채위기의 발생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쨌든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쿠에바는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이 결국 그들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조직 능력,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쿠에바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불평등 사회구조를 생산하는 모순적 발전과정이며, 종속은 자본주의 기본 구조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순을 보다 심화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결국 내부적 계급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종속이론 비판가 아구스틴 쿠에바

아구스틴 쿠에바는 에콰도르 사람이다. 에콰도르 국립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 Ecuador)의 교수로 근무하던 중 권위주의의 탄압을 피해 아옌데 시절 칠레의 콘셉시온대학교(Universidad de Concepción)로 옮겼다. 그러나 피노체트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멕시코로 옮겨와 멕시코국립대학교(UNAM) 정치사회과학대학에서 재직했다. 2002년 질병으로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조국 에콰도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표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 외에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과정과 사회 이론 분야에 있어서 역시 고전으로 꼽히는 『분노와 희망 사이에서』(Entre la ira y la esperanza, 1981년), 『라틴아메리카 사회 이론과 정치 과정』(Teoría Social y Proceso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1979년), 또 조국 에콰도르의 정치를 분석한 『에콰도르 정치 지배 과정』(El proceso de dominación política en el Ecuador, 1990년) 등이 있다.

아구스틴 쿠에바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학회(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종속이론 비판의 선두에 섭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진보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라틴아메리카는 쿠바혁명 이후 사회 전반이 급진화되었다. 사탕수수에 국가 경제의 거의 전부를 의존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쿠바에서 일단의 청년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한 혁명이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형태를 띠면서 성공적으로 실현되어감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쿠바혁명은 기존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단계적 실천 이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구했다. 자본주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쿠바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된 데 대한 이론적 설명을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종속이론이다.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반봉건적이지 아니라, 식민지 시대 이래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약한 고리에 이미 편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때부터 라틴아메리카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는 서구 유럽 자본주의와 달리 종속 자본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식민지적 수탈을 통해 자율적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던 서구 자본주의와 종속적 수탈을 당하면서 발전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그럼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

의는 결코 서구 자본주의와 같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종속이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결국 라틴아메리카가 그러한 종속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종속 관계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종속이론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렬한 가운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들어서 정통 좌파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68년 프랑스를 기점으로 시작된 서구사회 계급갈등의 심화였다. 그러한 현상은 사회문제 인식에서 전반적 논점을 외적 모순에서 내적 계급 모순으로 돌려놓았다. 또한 1973년 아옌데 정권의 붕괴도 종속이론가들의 급진적 변혁 이론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성급한 혁명운동이 보수반동을 야기해 군사독재라는 더 큰 악을 불러왔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정통 좌파의 종속이론 비판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구스틴 쿠에바이다. 그는 무엇보다 종속이론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가 서구와 같이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즉 '잃어버린 민족적 자본주의에 대한 향수'가 종속이론가들의 주장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에바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계급 모순을 안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구스틴 쿠에바는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가 서구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종속이론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가 볼 때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는 것으로, '종속'과 '서구'라는 수식어는 단지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종속'과 '서구'가 자본주의를 넘어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쿠에바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이미 자본주의라고 보는 시각 또한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시각은 분석의 대상을 지나치게 교역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생긴 오류이

며, 생산 관계와 계급적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 중반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다양한 생산 양식이 존재하는 반봉건적 사회라는 것이다.

결국 종속이론의 근원적 문제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순인 내적 계급 모순을 경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종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 데 있다고 말한다. 물론 쿠에바도 종속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함을 인정하나, 이러한 모순이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인 계급 모순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상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한 책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이고, 그를 통해 아구스틴 쿠에바는 정통좌파의 입장에서 종속이론을 비판한 라틴아메리카 대표적 지식인이 되었다.

4. 좌파의 위기, 그리고 쿠에바 사상의 현재성

쿠에바 사상에 대한 비판은 좌파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쿠에바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유물결정론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에 따른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서구 자본주의든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든 자본주의 자체는 모순적이라고 보았다. 그중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는 종속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모순의 정도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중의 빈곤화가 보다 더 심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계급투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외채위기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조직들의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알란 가르시아의 인티 플랜으로 대표되는 비정통파 경제 모델들의 실패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는 당연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시대적 상황에 따르는 우경화를

시작했다.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계급투쟁보다 선거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보다 더 존중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방, 긴축,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모두 받아들인 좌파는 이제 단지 '실용적' (신자유주의)이라는 수식어만으로 자신들을 우파와 구분하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아구스틴 쿠에바와 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설 곳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면 쿠에바의 사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에 답하기 위해 크리스토폴 케이의 최근 논문(Cristóbal Kay, 200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왜 아시아가 라틴아메리카를 추월했는가?」라는 논문에서 국가와 시장의 논쟁을 넘어 토지개혁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의 논지는 쿠에바의 계급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흥미롭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교훈을 주로 산업정책이나 교역정책 혹은 국가의 역할 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농업구조, 지주와 농민의 관계, 토지개혁 등의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양 지역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지개혁과 정치권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자는 한국과 대만의 경우 산업화 과정 이전에 다양한 이유로 지주계급이 소멸됨으로써 국가가 지주계급을 대신하여 농업의 잉여를 산업화로 적극 이전하였고 그로 인해 토지개혁이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주계급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실현된 토지개혁도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확대나 농업 잉여의 산업 이전과 같은 산업화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라틴아메리카 지주계급의 영향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의 존재가 라틴아메리카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어려운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실현하기보다는 지대추구의 의식과 행위를 선호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론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가 정치 바로 지배계급의 성격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쿠에바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점을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계급 문제에서 찾으려는 쿠에바의 노력은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